

# 장백산천지

제 252 호

2015년 4월 24일

금요일



## 선량집

[밍후이왕] 나는 대면 진상을 하면서 사람들이 선량한 마음에서 우려나와 감동적인 언행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그 일부를 여러분과 나누려 한다.

### 버스 승객 : 파룬궁은 조만간 명예를 회복할 것

2014년 4월의 어느 날, 내가 버스에 올랐는데 두 승객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남성 승객에게 물었다. “ 구이저우(貴州)의 ‘장자석(藏字石)’을 아세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파룬궁 수련생이시죠?” 라고 물었다. 내가 그렇다고 하자 아주머니가 물었다. “ 가오즈성(高智晟) 변호사가 지금 어떤지 아세요? 풀려났나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던데요.” (가오즈성 변호사는 파룬궁 수련생의 무죄를 주장한 이유로 감옥에서 공산당의 박해를 받았다.)

아주머니는 “나는 가오즈성 변호사를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는 유능한 변호사인데 아주 대단해요. 듣자니 그의 변호사 사무소가 (공산당에 의해) 폐쇄됐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했다. 남자 승객은 “파룬궁의 상황을 우리는 모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파룬궁을 몰래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당신들을 매우 동정합니다. 당신들 중에는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말했다. “저도 박해를 당한

적이 있어요. 높은 곳에 매달리고 독약 주사를 맞고 웃도 벗겨졌죠...” 그 남자 승객은 말했다. “당신이 받은 박해는 가장 심한 편이지만 더욱 심한 사례도 있습니다. 조금해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전 세계가 모두 당신들 편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파룬궁은 조만간 명예를 회복할 겁니다. 시간문제니 아무쪼록 자신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명예가 회복되면 당신들이 나서서 말해야 하니까요.”

### 노점상 : “저는 당신들 사부님을 몹시 숭배합니다”

2014년 1월 어느 날, 나는 한 노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노점상과 그의 친구에게 물었다. “삼퇴(당, 단, 대 탈퇴)하여 평안을 지키는 일을 알고 계시나요?” 그들이 말했다. “진작 알고 있고 진작 탈퇴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축복을 올린다음 돈을 치르고 떠나갔다.

얼마후 나는 CD 30 여장이 담긴 가방을 그만 노점에 놓고 왔었는데 노점상은 CD가 담긴 가방을 건네주면서 친절하게 말했다. “제가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 때 다른 한 노점상이 다가와 “CD 한 장만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말했다. 보아하니 그들은 가방을 열어본 것 같았다. 나는 기뻐하면서 “그러지요!” 라고 대답했다. 그는 내

가 흔쾌히 대답하는 것을 보고 “두 장 주셔도 괜찮지요? 저는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을 아주 숭배합니다!” 라고 말했다.

### 작업반장 “‘파룬따파하오’가 없으면 안 되죠!”

2014년 2월 어느 날, 나는 큰 길에서 파이프 굴착 작업을 하고 있는 한 인부에게 진상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런데 작업반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가와서 나에게 “차 안에 걸어 놓는 진상호신부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있다고 하자 그는 “그럼 좀 많이 주세요” 라고 말했다. 옆에 있던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이는 동료도. “저도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작업반장으로 보이는 사람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그 흰색 차에 꼭 걸어 놓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호신부에는 모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라는 문구가 있다고 알려주자 작업반장으로 보이는 사람은 호신부를 살펴보면서 “‘파룬따파하오’가 없으면 안 되지요!” 라고 말했다.

### 버스기사 : 공산당이 없어야 신(新)중국 이 있어요!

내가 공공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농촌 여성에게 진상을 알리자 그녀는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이 없어요!”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일본군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 공산당이 ‘좁쌀에 보충’을 가지고 일본군 비행기를 몇 대나 떨어뜨릴 수 있었겠어요? 공산당은 게릴라전을 하면서 총 한 방을 쏘고는 즉시 다른 곳으로 도망갔는데 비행기, 대포와 해군 함대를 가진 일본군을 이길 수 있겠어요? 국민당 정규부대는 22 차례의 대전전, 1,117 차례의 대전역, 그리고 3만 8천 차례의 대소형 전투를 치르면서 300여만 국군이 희생한 대가를 치르면서 항일의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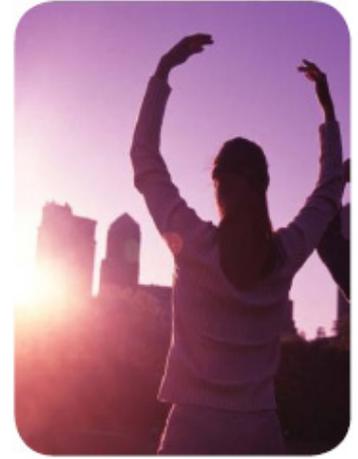
그 농촌 여성은 “그래요, 저는 지식이 없고 당신은 지식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다른 좌석으로 옮겨가서 앉았다. 한 중년 남성은 그 농촌 여성이 앉았던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다. “계속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 때 앞좌석에 앉았던 젊은 여성은 “파룬따파하오” 라고 말했고, 버스 기사도 “공산당이 없어야 신중국이 있습니다” 라고 거들었다.

글/ 산둥(山東) 대법제자◇

## 파룬궁은 살생과 자살을 용허하지 않는다

◆ 파룬궁은 불법수련이며 살생과 자살을 금지한다. 1995 년에 출판한 파룬궁 주요저작 《전법륜(转法轮)》 〈제7강〉 에는 : “련공인은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써여 있고 《시드니법회 설법(悉尼法会讲法)》 에는 : “자살은 죄가 있다.”고 써여 있다.

◆ 파룬궁의 모든 서적을 보면 “수련생더러 약을 먹지 말라”고 한 말은 한마디도 없다. 기실 파룬궁은 다만 수련과 약을 먹는 관계를 말했다. 《파룬따파 미국법회 설법(法轮大法 美国法会讲法)》 에서 명확히 말했다 : “사람, 당신에게 약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속인은 병에 걸리면 꼭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파룬궁 제 2 조 공법

## 나는 길림성 훈춘시 악경의 교란을 받았다

[밍후이왕]나는 훈춘시의 파룬궁 수련생이다. 2014년 9월 29일 8시경 이미 잠복해 있던 국보대대의 후모(한족)와 리모(조선족)가 내가 문을 여는 순간에 노크도 하지 않고 신분증명도 보이지 않고 강제로 집에 뛰어들었다. 집에 쳐들어온 후 그들은 공안국에서 왔다고 하면서 함께 검찰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내가 아침을 먹지 않았다고 말하자 그들은 빨리 먹은 다음 함께 가서 일을 처리하면 몇 분이면 된다고 했다. 나는 ‘당신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은 생각 하지 않습니까. 내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나를 박해하고 나의 수련환경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심에 얼마나 큰 상해를 주고 있습니까? 한번 또 한번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당신들은 재미있다고 생각합니까?’라고 말했다. 내가 밥을 떠 먹으려 했으나 두 손이 떨려(대법수련을 하기 전 엄중한 심장병이 있었음) 사발을 들 수 없어 아예 내려놓고 먹지 않았다. 머리가 부풀더니 눈앞이 어지러워 났다. (이 전에 국보대대에서 그들은 나더러 손도장을 찍고, 사진을 찍으라고 했는데 내가 거절하자 3-4명 경찰이 달려들어 억지로 나를 잡아당기고 들고 하다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려 그만 나의 머리가 바닥에 심하게 부딪히면서 기절하고 말았다. 그들은 나를 꼬집어서 깨어나게 하였는데 몇 칠 동안 머리가 아팠고 머리 뒤 부위에 생긴 멍은 여러 날 후에야 없어졌으며 몇 일간 머리마저 빛을 수 없었다.) 나는 비틀

거리면서 침실에 들어가 바닥에 앉았다(침대에 의지해 앉으면 호흡이 관찮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대법을 수련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고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련공을 하였다.

그들이 검찰원에 전화하자 검찰원에서 두 사람이 왔는데 그 중 한 명은 성이 썩 가였다. 썩이 “이 자료는 네가 만든 것인가?”고 묻자 나는 ‘헌법에는 신앙은 자유라고 했고, 내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자료는 나의 것이요. 이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기에 역시 법에 위반되지 않소. ‘헌법’ 35 조에는 공민은 신앙 언론 출판 결사 등 자유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소. 나는 도적질도 강도질도 하지 않았고, 자신이 아껴 쓰고 남은 돈으로 자료를 만들어 사람을 구하기에 나는 좋은 일을 한 것이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오.’라고 말했다..

이런 젊은이들이 박해에 휘말려 들어간 것을 보고 나의 마음은 아주 괴로웠다. 나는 ‘당신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 일에 휘말려 들었는데 응당 중국의 모든 법률을 한 번 보시오. 법률의 그 어떤 조항에도 파룬궁이 위법이라고 하지 않았소.’라고 말하자 그는 나와는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이 물건이 당신의 것인지 아닌지만 말하라고 했다. 나는 ‘물건은 나의 것이요. 그러나 법에 걸리지 않소.’라고 했다. 그가 서명하라고 하자 나는 ‘우리 사부님께서 말하

실은 것은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소. 당신과 협력하지 않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요. 내가 서명하면 바로 당신이 죄를 진 증거로 남는데 나는 또 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명할 수 없소.’라고 했다.

여기에서 나는 610, 공검법, 안건을 맡은 사람들에게 선한 경고를 한다. 파룬궁을 대함에 법으로 처리해야지 권리로 법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작은 리익을 위해 억울하고 가짜, 틀린 안건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파룬궁은 불법(佛法)수련으로서 파룬궁수련생들은 ‘真, 善, 忍(眞, 善, 忍)’을 표준으로 좋은 사람, 더욱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박해하면 정말로 위험하다. 선과 악의 보응은 천리이다. 사실 대법을 선하게 대하는 것은 자신을 선하게 대하는 것이며 대법을 박해하면 바로 자신을 회멸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쓰고 나니 중공에 의해 낙마된 전 총칭시 공안국국장 왕리쥘(王立军)이 자신은 당의 한 마리 개로 누구를 물라고 하면 누구를 물어야 한다고 한 말이 생각난다. 그는 또 그는 줄곧 ‘법(법률)’을 가지고 놀다가 생각밖에 ‘법(법률)’의 놀음에 의해 죽는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왕리쥘이 20 여 년간 중공을 위해 목숨을 팔았지만 자신에게 좋은 끝장이 없다는 것을 안 통렬한 결론이다. 당신들도 심각히 사색해 보기를 희망한다..